

壬辰倭亂期 慶尙右道 三嘉 義兵 活動

- 義兵將 龜山 尹鐸을 중심으로 -

尹 昌 鉉* · 朴 均 烈**

1. 머 리 말
2. 三嘉義兵과 인접지역의 義兵
3. 三嘉義兵의 活動과 戰果
4. 몇 가지 검토 및 제언사항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역사는 과거 특정 시점과 공간에 제약된 개념이 아니라 그 주체인 인간의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결고리이다. 이에 임진왜란 시기 경

*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동대학교 대학원장 역임, 2005년 1월 24일 영면.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제2저자는 제1저자의 학문적 공덕을 존경하고 있던 터에 미망인이신 金斗善 선생님(전 초등학교 교감 역임)으로부터 유고의 보완·발전 요청을 받아 기고하게 되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교지 등 소장자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준 龜山公 尹鐸의 12대손 尹鎰 선생님과 公의 종제이자 右參贊벼슬을 지내신 秋潭公 尹銑의 12대손 尹泰鉉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상우도의 삼가지역 의병의 문제는 이러한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었다. 당대 의병에 대한 평가기준의 편향성, 인접지역의 걸출한 의병장들의 출현, 삼가지역 자체가 가진 전략적 비중의 상대적 저평가 등이 그 연유이다.

임진왜란 시기 각 지역에서의 의병은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창 의하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의병의 대오를 유지하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것은 바로 경상우도 의병이었다. 경상우도 의병은 독립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이들 의병의 활동으로 우도지역의 보존은 물론이고, 조선군은 전세를 점차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경상우도에서의 의병활동은 왜란 발발 후 10여 일이 지난 임진년 4월 22일에 의령 儒生 郭再祐의 창 의 기병으로 개시되었다. 본격적으로는 경상감사 金晬가 勤王을 청탁하여 본도를 떠나고 초유사 金誠一이 임진년 5월 8일에 함양에 도착하자 列邑士林에게 通文과 檄文을 돌려 창 의를 종용하였는데 그의 통문과 격문을 받은 우도의 列邑士子들은 5월 초순부터 계기적으로 창 의, 기병하게 되었다.¹⁾

본고는 이와 같은 경상우도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그동안 소홀했던 三嘉지역의 의병에 대한 연구, 특히 그 중심에 있었던 龜山

1) 경상우도 지역 의병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潤坤, 「郭再祐의 義兵活動: 특히 조직과 전술, 전략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33, 1967; 金錫禧, 「壬辰亂의 義兵에 관한 再考察」, 『釜山大論文集』, 13, 1972; 李章熙, 「忘憂堂 郭再祐의 義兵活動」, 『南冥學研究』 2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2; 김해영, 「郭再祐의 義兵活動 事蹟에 대한 考察」, 『慶南文化研究』 17호,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95; 정현재, 「慶尙右道 壬辰義兵 戰跡 검토」, 『慶南文化研究』 17호,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95; 김준형, 「진주 주변에서 왜적 방어와 의병활동」, 『慶南文化研究』 17호,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95; 지승중, 「16세기말 晋州成戰鬪의 배경과 전투 상황에 관한 연구」, 『慶南文化研究』 17호,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95;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4; 최효식,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2007;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해안, 2001; 장학근, 『조선, 평화를 짝사랑하다』, 플래닛미디어: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김면(金沔)의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33-64쪽.

尹鐸의 의병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병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삼가 의병에 대한 조명은 거의 없었다. 俛宇 郭鍾錫 선생이 서문을 쓴 『龜山實記』에 따르면,²⁾ 龜山은 坡平尹氏로 1554년(명종 9년)에 三嘉 龜坪에서 출생하였다. 이곳에는 구산의 4대조인 司直公 師襄이 처음으로 卜居한 이후 삼가의 명문사족으로 성장하였다. 구산은 성장하면서 來庵 鄭仁弘의 문하를 출입하였고 察訪 周梯의 女 尙州 周氏를 처로 맞이하였다. 宣祖 乙酉년에 31세로 무과 급제하였다.³⁾

그는 삼가 의병장으로서 忘憂堂 郭再祐와 함께 의령 방면의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왜적을 무찔렀고, 영산전투에도 참가하였으며 사천·고성·진해의 수복전과 진주성 제1차·제2차 전투 등에도 참전하였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엄청난 대병의 왜군이 침공하여 후원군이 없는 상태에서 守城軍과 함께 성이 함락될 때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순절하니 그때 향년 40이었다.⁴⁾ 전후 宣武原從功臣 3등의 녹훈을 받았다.

2) 龜山이란 호를 가진 인물 중에 尹鐸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卞璧(1483-1528)이라는 인물이다. 그의 字는 獻之, 본관은 密陽이며, 호는 龜山이다. 합천군 야로면 돈평리 출생으로, 3세때 부친상을 당하자 외가인 거창으로 이주하여 茅谷 龜山 아래에 거거하게 되었다. 그의 후손에 의해 편찬된 그의 행적을 『龜山年譜』가 전해오고 있다.

3) 구산공의 과거급제 등수는 명확하지 않다. 후손들의 현전 교지도 없는 실정이다. 『武科榜目』을 확인하는 길이 남아 있다. 그런데 현재 전승되어 오고 있는 『무과방목』에도 당해연도 전체의 자료가 없다. 현전 『무과방목』은 총 138개인데 전체 801회분 중 17.3%만이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정해은, “무과방목 해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vice/common/hj/무과방목해제.html>,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08. 10. 6 검색). 다행히 현재 합천의 창의사에는 과제 답지의 원본(초서와 중서 2종)이 보관 중인데, 그 자료 해설에 2등으로 급제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과(갑과, 을과, 병과) 중에서 2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을과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그 표기가 맞다면, 사료 및 자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계급이 봉사(奉事) 또는 권지봉사(權知奉事)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경우 병과로 급제한 뒤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로 관직에 나선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구산공은 병과 2등으로 급제했다고 추정된다.

4) 『坡平尹氏九房派世譜』 首: 『龜山實記』: 『龜山遺事』: 『陝川壬亂史』 2, 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 2001, 347-350쪽.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정사인 실록을 중심으로 동시대 인물들의 문집, 그리고 구산공의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소장자료와 편찬자료 등이 있다. 이미 체계적으로 컴퓨터로 색인이 용이하게 개발된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http://www.minchu.or.kr/MAN/index.jsp>)의 색인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당시의 전투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동여지도』와 정밀지도전문사이트인 콩나물(<http://www.congnamul.com/>)을 활용했다. 인물의 고증을 위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jsp>)을 활용했다. 인용구의 출처를 밝힐 경우, 고서는 '면'이라고 하고, 현대에 편찬된 책과 논문은 '쪽'이라고 한다.

2. 三嘉義兵과 인접지역의 義兵

(1) 三嘉義兵의 構成

삼가지역의 의병은 국가의 召募義兵이 있기 전에 봉기가 시작되었다. 즉 경상우도에서는 1592년(선조 25년) 4월 22일에 郭再祐가 의령에서 의병으로서 가장 먼저 조직에 착수하여 이미 5월 초에는 활동을 시작했다.⁵⁾ 경상우도 내의 의병활동은 임진년 5월 4일 이후 합천, 고령, 현풍, 삼가, 초계, 산음(현재의 산청), 단성, 그리고 함안 등에서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⁶⁾ 한편 金誠一이 초유사로서 경상우도 함양에 5월 8일경 당도하여 도민들에게 기병 독려의 招諭文을 발송하였다.⁷⁾ 초유사 일행은 그 앞에 초유기

5) 『宣祖實錄』 권27, 선조 25년 6월 초에 광재우의 기병일이 4월 22일로 기록되어 있다.

6) 『龍蛇日記』 62면.

7) 『鶴峰先生文集』 권3, 招諭一道士民文 壬辰, 『龍蛇日記』 47-50쪽.

를 내세우고 5월 10일 산음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招諭使傳令木碑를 만들어 신포로 삼고 趙宗道는 의령, 李魯는 삼가·합천 방면으로 각각 의병 소모관의 임무를 띠고 떠났다.⁸⁾ 李魯가 삼가에 가서 奉事 盧欽과 朴思謙, 朴思劑, 盧鎔 등과 만나 초유의 뜻을 부탁하니 삼가에서 의병을 일으켜 얻은 군사가 800~900명은 되었다.⁹⁾ 그러나 삼가 의병이 구체적으로 조직된 정확한 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5월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¹⁰⁾ 지도부는 진사 尹彥禮를 비롯하여 尹鐸, 朴思劑, 盧欽, 尹銑, 鄭演, 曹繼明, 盧鎔, 許子大, 鄭啞, 朴思謙, 朴應龜, 李屹, 宋希淳, 宋希哲, 金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삼가현 소재 淨襟堂에 모여 왜적을 물리칠 것을 다짐하고 이 자리에서 尹鐸을 삼가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¹¹⁾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상우도에서는 서서히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는 초유사 金誠一의 馳啓에 잘 나타나 있다.¹²⁾ 이런 와중에 5월로 접어들면서 경상우도에서는 朝命을 받들었던 초유사의 노력에 힘입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지방의 감사, 초유사의 명을 받아 合軍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상우도에서는 초유사 金誠一의 명망과 활약에 힘입어 合軍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령 郭再祐軍에 삼가 尹鐸軍이 合軍한 경우이다.¹³⁾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郭再祐軍은 날로 군세가 늘어났다.

5월 12일경 郭再祐는 초유사 金誠一을 단성에서 만나고 趙宗道와 같이 진주까지 동행한 후 의령으로 돌아온 郭再祐는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후 郭再祐軍은 급속히 증가하여 2천을 헤아리게 되었다.¹⁴⁾

8) 『鶴峰先生文集』 권2, 巖右縷一絶, 『龍蛇日記』 96면.

9) 『龍蛇日記』(公之受命).

10) 『龍蛇日記』 62면.

11) 李樹建, 『南冥學派 義兵活動의 歷史的 意義』, 『南冥學研究』 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朴性植, 『壬辰倭亂의 研究』, 대화출판사, 1991; 『龜山實記』 권2.

12) 『宣祖實錄』 권29, 25년 6월 병진조.

13) 『忘憂堂全書』 附錄 권3, 龍蛇別錄 참조.

또한 감사 金擘는 5월 26일경 합천 鄭仁弘軍에 삼가, 초계, 성주, 고령 등 4읍의 군사를 속하게 조치하였다.¹⁵⁾

삼가 尹鐸軍이 의령 郭再祐軍과 合軍한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감사 金擘에 의하여 5월 26일경에 남아 있는 삼가 군사가 鄭仁弘軍에 合軍한 것으로 보아 이보다 앞서 5월 16일경에 合軍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鄭仁弘軍은 6월 중순경에 3천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¹⁶⁾ 鄭仁弘의 의병은 金沔 의병보다 일찍이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鄭仁弘軍의 첫 전투인 무계전투가 5월 29일부터 작전에 돌입했다.¹⁷⁾

이와 같이 삼가 의병은 창 의 후 인접지역의 의병전투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宜寧義兵의 構成

의령에서 幼學 郭再祐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임란 발발 후 10여 일이 지난 4월 22일이었다.¹⁸⁾ '家僮十餘人'의 소규모로 倡義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다.¹⁹⁾ 초기 기병시 참여한 사람은 郭再祐, 吳滢, 沈大承, 權鸞, 安起宗, 李雲長, 李雲紀, 沈紀一, 裴孟伸, 許彥深, 曹士南, 姜彥龍, 張文章, 朴弼 등이다.²⁰⁾

기병 후 얼마 되지 않아 휘하 병사 50여 명이 의령 초계의 관곡을 풀어 내고 또 岐江에 버려진 배의 租稅米를 취해 군량에 충당하게 되면서 郭再

14) 『鶴峰集』: 移拜左監司時論右道宜狀以 拾遺.

15) 『亂中雜錄』, 임진 5월 26일, 『燃黎室記述』 권16.

16) 『李擢英日錄』, 임진 6월 14일.

17) 『亂中雜錄』, 임진 5월 26일.

18) 『亂中雜錄』 1, 임진 4월 22일조: 『忘憂集』 권2, 疏, 倡義時 自明疏.

19) 『龍蛇日記』 11면.

20) 李樹健, 『앞의 논문』 참조.

祐는 관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²¹⁾ 관의 개입이 본격화 되자 군사들의 이탈로 郭再祐 의병은 제대로 활동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체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해체 위기에 봉착했던 그의 의병이 극적으로 희생한 것은 초유사 金誠一의 來到와 지원에서 비롯되었다. 金誠一이 함양에 도착한 것은 5월 8일경으로,²²⁾ 이 무렵 郭再祐는 휘하 군사들의 이탈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충격을 받아 지리산으로 은둔하려던 참이었다고 한다.²³⁾

金誠一이 함양에 도착해 만나게 된 李魯, 趙宗道로부터 郭再祐 의병의 官物濫取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정황을 전해 듣고 郭再祐의 의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즉시 도내의 일반 관민을 상대로 하는 招諭文을 직접 제작하여 고시하는 한편, 郭再祐에게는 별도로 공첩 형식의 通諭文을 발송하였다.²⁴⁾

이 통유문이야말로 郭再祐 의병과 그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조치였던 것으로 즉시 인근 제읍에 통유문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郭再祐의 행동이 의거로서 인정되었고 그의 의병은 극적으로 소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⁵⁾

金誠一이 산음을 거쳐 단성에 이르는 5월 12일경 郭再祐는 초유사 金誠一을 찾게 되었다. 단성에서 金誠一을 만나고 진주까지 동행한 후 의령으로 돌아온 郭再祐는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감사 金晔가 도내의 관군 및 지휘부를 이끌고 勤王上京을 청탁하여 본도를 떠나 있던 시기이기도 하며 이 무렵 金誠一은 金晔와 대립관계 있던 郭再祐를 깨우친 외에 의령 郭再祐 軍에 삼가 尹鐸 軍을 합軍을 통해 군세를 증가시켜 주었다.²⁶⁾ 이후 郭再祐 軍은 급속히 증가하

21) 『亂中雜錄』 1, 임진 6월 19일조.

22) 『孤臺日錄』 5월 8일조.

23) 『鶴蜂集』 附錄, 年譜.

24) 『亂中雜錄』 임진 5월 20일조; 『孤臺日錄』 5월 8일조.

25) 『鶴蜂集』 附錄, 年譜.

여 2천을 헤아리게 되었다.²⁷⁾

(3) 義兵組織의 變化와 作戰地域

三嘉의 尹鐸 軍은 招諭使 金誠一의 지시에 따라 宜寧의 郭再祐 軍과 합軍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영남의병 봉기 및 결성에 招諭使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게 한다. 郭再祐는 品官 출신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영남 사림과의 대표적인 가문 출신이었다. 때문에 退溪의 고제인 招諭使 金誠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金誠一은 郭再祐의 부 郭越이 司諫으로 있을 때 그 아래의 應教로 있었다. 그러한 사정은 감사 金晔와 郭再祐 사이의 대립 반목시 金誠一이 郭再祐를 구원하는데 크게 힘쓰게 하였으며 전투 수행에서도 金誠一이 郭再祐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병력의 수가 수백 명에서 2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의병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이즈음 郭再祐 휘하 군사들의 조직 및 작전 지역의 내용은 『龍蛇日記』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삼가 사람들이 尹鐸을 大將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려서 再祐에게 보내므로 채우는 두 縣의 군사를 거느렸다. 鼎湖와 世于 양처에 大陣을 치고 번갈아 오가고 머물면서 한편으로 昌原, 熊川에서 咸安에 출몰하는 왜적을 막고 한편으로 洛江에 充斥한 왜구를 막았다.²⁸⁾

의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그 구성원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의병장 이하 지휘관들도 직임을 분담하여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26) 『忘憂全書』 附錄, 권3, 「龍蛇別錄」 참조.

27) 『鶴蜂集』, 移拜左監可時論右道宜狀以下拾遺.

28) 『龍蛇日記』 15면.

되었다.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무를 분장할 참모진을 편성하게 된다(<표 1> 참조).

참모진의 출신성분을 보면 전직목사와 훈련원부정에서 훈련원봉사에 이르는 전직관료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지주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써 모두가 양반 계층이다. 또 참모들 중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무직에 종사했던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군무분장도 재질에 따라 적제적소에 배치하였다. 그들을 거주지별로 보면 3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령, 삼가 지방의

<표 1> 초기 郭再祐 義兵軍의 軍務分掌表

職 位		姓 名	居 住 地	參 考 事 項
龍蛇別錄	龍蛇募義錄			
義兵將	義兵將	郭再祐	宜寧	儒學, 讀兵書, 治弓馬, 通春秋.
代 將	領 將	尹 鐸	三嘉	宣祖乙酉武科, 副正
都 摠	都 摠	朴思齊	三嘉	學諭, 典藉
收兵將	收兵將	吳 溙	榮州	前牧使
收兵將	收兵將	李雲長	宜寧	武科, 左副將.
先鋒將	先鋒將	裴孟仲	宜寧	
先鋒將	先鋒將	沈大承	宜寧	訓練判官
督後將	督後將	鄭 演	三嘉	
突擊將	突擊將	權 鸞	宜寧	訓練奉事, 武科, 軍威縣監
調軍糧	調 軍	鄭 晔	三嘉	
典軍餉	典 軍	許彥深	宜寧	家甚殷富
主運饋	典 餉	盧 鎔	草溪	曹植門入
治兵械	治 兵	姜彥龍	宜寧	
造軍器	軍 器	許子大	三嘉	慷慨有大節, 卒家僮
譏 察	譏 察	沈紀一	宜寧	有智略
伏 兵	伏 兵	安起宗	宜寧	訓練奉事 家僮 및 白米 白石 提供
軍 官	軍 官	曹士男	宜寧	
軍 官	軍 官	朱夢龍	晋州	登武科, 宣傳官

출처: 『忘憂集』, 「龍蛇別錄」과 「龍蛇募義錄」 근거하여 작성.

토착민들이었다. 그들이 결사적으로 왜병을 막고 스스로 자기 고장을 지켜야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싸움에 임했다는 것은 의병 지휘부의 핵심 인사들이 그 고장 출신이라는 데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郭再祐 의병이 확고한 조직체계를 결성하기까지는 초유사 金誠一의 도움이 컸다. 특히 郭再祐가 두 개 현의 병력을 지휘하고 그의 휘하 군사조직이 이런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은 초유사 金誠一의 조처에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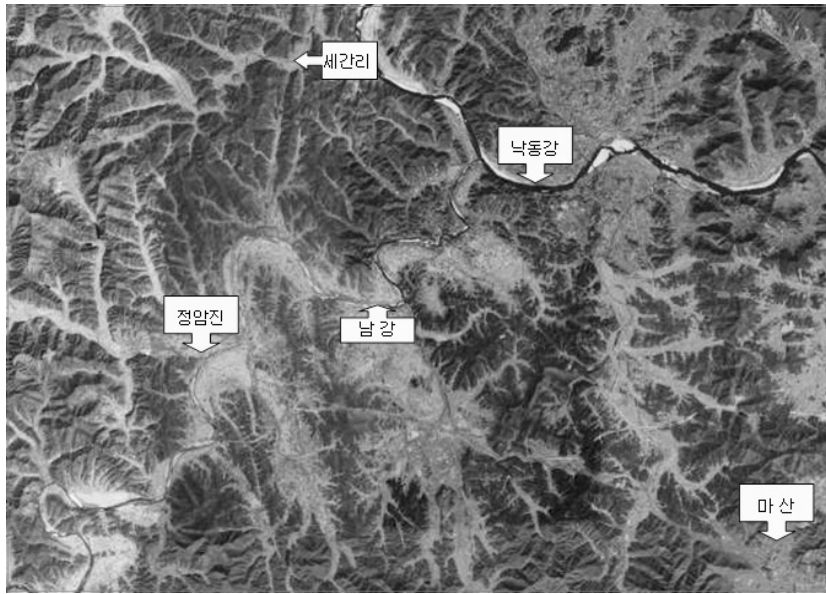
얼마 뒤 金誠一은 각 지역별로 전투 조직을 점고케 하는 바, 金誠一의 명을 받아 의령 지역의 의병을 점검한 李魯가 군사 활동 현황을 보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尹鐸이 삼가 군을 거느려 龍淵에 주둔하고 沈大承은 의령의 군사를 거느리고 長縣에 주둔하고 沈紀一은 鼎湖의 배를 지키면서 강을 건너는 것을譏察하고 安起宗은 柳谷에서 복병을 설치하고 李雲長은 洛西를 관장하고 權鸞은 옥천대를 차단하고 목사 吳溙은 白巖에서 收兵하고 곽대장은 世于에서 留軍하며 가운데서 통제하였다. 좌로는 낙동강, 우로는 정호 연변의 상하 60리에 望軍을 뺨뺨이 두어서 정보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혹은 공격하고 혹은 축출하니 왜적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여 남아 있는 백성들이 밭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²⁹⁾

왜란 초 전략기지로써 宜寧縣내에 위치한 鼎岩津과 世干里를 본거지로 삼았다. 지리상으로 볼 때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인 거름강과 陣營을 설치한 정암진과 세간리는 지형적으로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수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두 진영을 왕래할 수도 있고 직선 코스인 육로를 통할 수도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무엇보다도 마산방향으로부터 정암진에 이르는 직선 개활지대(開豁地帶)가 형성되어 있어 적의 침투에 용이하며, 아군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그림 1) 참조).

29) 『龍蛇日記』 19면.

[그림 1] 위성사진으로 본 정암진-세간리 부근의 지형



주: 사진에서 밝은 부분은 주택가 또는 강변이며, 짙은 부분은 산을 나타냄.

세간리는 郭再祐가 최초로 의병을 모집한 외가가 있는 마을이다. 이곳을 전략지로 삼은 것은 깊은 까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치는 거름강으로부터 북으로 올라가 창녕과 마주하는 낙동강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낙동강을 오르내리며 병력과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왜선단을 차단, 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정암진과 세간리 두 곳을 활용하여 적의 도강을 저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오르내리며 군수물자와 약탈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왜선단을 진을 치고 있는 의병으로 하여금 차단케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의령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이웃 고을인 현풍, 창녕, 영산, 진주까지를 작전지역으로 설정, 유사시에 대처하였다. 정암진에서는 수로나 육로를 통하여 진주와 영산에 병력을

출동시키기가 용이하였고, 세간리는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영산과 창녕을 기습 공략하기에 편리한 지점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尹鐸은 삼가군을 거느리고 鼎岩津(龍淵)을 본거지로 삼고 沈紀一로 하여금 배를 지키면서 강을 건너는 왜적을 譏察케 하였다. 또한 郭再祐는 의령군을 거느리고 世千里를 본거지로 삼고 여기에서 가까운 長縣에는 沈大承, 洛西에는 李雲長이 관장케 한 점이다.

3. 三嘉義兵의 活動과 戰果

(1) 鼎巖津 戰鬪

정암진 전투는 임진년 6월 초에 의령 정암진에서 벌어졌다.³⁰⁾ 이 시기의 왜군은 경상도를 담당한 毛利輝元和 전라도를 담당한 小早川隆景 휘하의 부대였다. 小早川隆景은 당초 전라도 해안에 상륙할 계획이었으나 李舜臣 함대에게 왜의 수군이 전멸당하였으므로 길을 바꾸어 함안·의령·단성·함양 등을 거쳐 전라도 운봉으로 들어가 남원·임실을 지나 전주로 침입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중·횡격실에 따라 잘 발달된 이동로는 일본의 이러한 작전계획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그림 2] 참조).

5월 하순경에 함안을 점령하고 정암진을 건너려던 왜군은 小早川隆景의 심복 부하인 安國寺僧惠瓊이 이끄는 2천여 명의 대병력이었다.³¹⁾ 의령·삼가 의병 연합군은 최초로 강적을 맞게 된다.

30) 李章熙, 앞의 논문, 1992; 김해영, 앞의 논문, 1995: 여기서 말하는 鼎津은 鼎巖津(솔바위나루)을 말한다.

31) 貫井正之, 「民衆의 입장에서 바라본 壬辰倭亂」, 『南冥學研究』 8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8, 『忘憂堂集』 권3과 부록인 『龍蛇別錄』에 따랐다.

[그림 2] 위성사진으로 본 정암진 부근의 지형



주: 화살표시 부분에 정암진의 누각(鼎巖樓)이 위치하고 있음.

이때 조선군의 전략·전술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달려들던 왜군은 크게 패하여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전투는 승리가 의병을 일으킨 이후 왜군과 싸워 이룩한 최초의 勝捷이며 의병 활동 기간에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었다. 또한 임란 초 전쟁의 국면 전환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정암진 승첩은 종래의 왜선 축출 등과 같은 승리와 비교하면 전술적 측면에서도 주목되지만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에서의 침입을 구체적인 접전을 통하여 격퇴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상 의의가 큰 것이었다.³²⁾ 즉 정암진 전투는 낙동강-남강 전선에서 아·왜간 접전을 통하여 거둔 최초의 승전으로 우도로 진출하려던 왜의 작전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다 주었다. 정암진 전투 이후 왜군은 이곳을 통과하여 경상우도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였다.

32) 『亂中雜錄』 2, 임진 8월 4일조(金誠一의 狀啓).

<표 2> 의령·삼가 의병 배치 현황

직위(병종)	해당 의병(장)
全 般 總 指 揮	義兵將 郭再祐 - 世干에 駐屯
三 嘉 縣 軍	代將 尹鐸 - 龍淵(鼎巖津)
宜 寧 縣 軍	沈大承 - 長峴(縣東 25里)
渡 河 場 檢 索	沈起一 - 鼎湖
伏 兵	安起宗 - 柳谷
洛東江西部地區	李雲長 - 江岸地區
通 路 遮 斷	權 鸞 - 玉川臺
幕 兵 官	吳 滢 - 白巖

출처: 李炯錫, 『壬辰戰亂史』,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이때 의령·삼가 의병의 일반 배치 상황은 전력과 경험, 그리고 지역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조직적으로 구축되었다(<표 2> 참조).

뿐만 아니라 왜군은 정암진에서 물러선 이후 영산·창녕을 지나 북상하여 현풍에 이르러 이곳에서 장차 낙동강을 건너고자 한동안 우도의 의령·삼가 의병과 대치하였다가 다시 성주 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를 알려 주는 기록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倭船 18艘가 雙山驛(현풍 북쪽 15리)으로부터 上來하다. 차칭 政丞 安國寺 行차라고 하여 가야산을 탐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일 전라감사라고 칭하면서 창원에서 先文을 보냈던 자였다. 정진에 이르러 광재우에게 퇴각당하자 영산·창녕을 지나 장차 岐江을 건너고자 전라감사가 호남으로 가려는 것으로 칭하면서 또한 先文을 보내 맞이하라고 하였다 한다. 초계·의령 등지의 土民들이 두려워 산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 광재우가 또한 치달아 적의 선두에 이르러 사민을 이끌어 내고 의로서 설득하고 창고를 풀어 군사들에게 먹이고 군율을 엄히 하여 준비를 갖추자 왜적이 광의 군대가 엄정함을 보고 ... 건너지 못하여 물러나 쌍산을 거쳐 성주로 향하였던 것이다.³³⁾

의령·삼가 의병연합군의 작전 지역이 지켜짐으로써 이후 경상우도에서 왜군과의 접전은 의령 이북의 星州 방면과 인근의 居昌 등에서 이루어졌다. 윤탁의 삼가군이 이 전투에 참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 해 6월 중순경에 知禮, 金山, 開寧 등지에 진을 치고 있던 적이 牛頭嶺을 넘어 거창을 거쳐 호남에 침입하려 했다. 이때 열읍을 순찰하고 있던 초유사 김성일은 거창 창의병장 金沔의 지키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급히 삼가군에 명령하여 도울 것을 요청하여 이에 적극 응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⁴⁾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전투에서 왜적 700여 명이 가야산을 넘보고 있어, 구원하러 가서 정상에 올라가 힘써 싸우니 적은 물러갔으며, 이들이 熊川과 金海의 적과 합세하여 진주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다시 본진인 정암진으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다.³⁵⁾ 하지만 관련 실록이나 이를 명령했다고 하는 초유사의 개인문집 등에는 이러한 기록이 일절 없어 이 전투에 윤탁이 참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2) 玄風·昌寧·靈山의 戰鬪

의령을 비롯한 인근 고을이 수복되자 이 지역에 침입하였던 왜군은 전부 거름강과 낙동강을 건너 左道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현풍·창녕·영산에 주둔한 왜군은 군세가 왕성하여 김해에 있는 적과 서로 통하고 요로에 진을 치고 도로를 확보, 성주와 연결하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郭再祐는 정암진 승첩의 여세를 몰아 현풍을 위협해 가자 현풍에 머물러 있던 왜군은 놀라 도주하였으며, 창녕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들도 현풍 주둔 왜군이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뒤따라 철수해 버렸다. 그런데 영산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만은 그 세력이 강한 것을 믿고 쉽게 퇴

33) 『亂中雜錄』 1, 임진 6월 6일조.

34) 『陝川壬亂史』 2, 앞의 책, 348쪽.

35) 『龜山遺事』, 70-71쪽.

각하려 하지 않았다. 현풍·창녕·영산 지역의 수복 경과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郭再祐가 경상우도의 열읍을 수복하니 적병이 모두 좌로 달아났다. 처음에 현풍·창녕·영산에 주둔한 적이 매우 성하여 구름과 잇달을 만큼 진을 치고 오르내리는 길을 만들어 성주와 상통하고 있었는데, 再祐는 본래 신기한 피가 많은지라, 정에 부대 수백 명을 뽑아서 현풍으로 끌고 나갔다. ... 밝은 새벽에 보니 현풍의 적이 간밤에 이미 도망가 버렸다. 이 거사는 마침 무계의 거사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 적은 더욱 공포심이 생겨서 도망간 것이다. 그 후 5일 만에 창녕의 왜적이 역시 소문을 듣고 철거했는데 오직 영산의 적은 그 무리가 많고 강함을 믿고 오래도록 옮기려 하지 아니하므로 郭再祐가 초유사 金誠一에게 고하여 삼가·의령·합천 등의 군사를 내게 하여 합천·삼가 군사는 尹鐸이 이끌어 이어서 지원하고 의령 군사는 再祐가 이끌어 들어가 적진과 마주 보는 봉우리 위에 진을 치되 3진으로 나누고 再祐가 중앙에 있었다.³⁶⁾

이 무렵 창녕·영산에는 왜적이 여전히 강변에 출진하고 있는 등 활동을 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성곽에 머물면서 군정을 행하는 한편 의령 방면의 재침을 엿보던 왜군을 성밖으로 쫓아내어 왜군의 전략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³⁷⁾ 이때 의병군은 왜군에 대해 거센 공약을 펼쳤고, 왜군은 이에 맞서 결사코 대항하였으나 마침내 의병의 위세에 눌려 곤궁에 빠지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이용, 도주하고 말았다. 이후 창녕을 통하는 길은 왜군의 왕래가 단절되고 왜군은 오직 밀양·대구로부터 안동·선산을 통하는 中路만 통행하게 되었다.³⁸⁾

36) 『亂中雜錄』 1, 임진 7월 9일조.

37) 『亂中雜錄』 1, 임진 7월 9일조.

38) 『忘憂集』 권3, 附錄 龍蛇別錄 참조.

영산 전투 이후에 있어서 의령·삼가 의병군의 활동은 金誠一이 8월 초순에 올린 다음의 장계에 잘 나타나고 있다.

金誠一 啓曰 … 신이 좌도 순찰에 임명된 지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교서와 인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 신이 각 고을에 통문을 돌려 선비 중에 유식한 자를 선택하여 소도관을 시키고 武弁 가운데 재주 있는 자로 가장을 삼았습니다. … 현풍·영산의 적도 역시 공격할 만한 기회가 있으므로 고령·합천·초계의 의병으로 하여금 현풍을 치게 하고 창녕·의령의 군사로 영산을 치기로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 奉事 尹鐸은 삼가의 군사를 거느리고 의령 정진 및 신반현을 지키고 幼學 郭再祐는 의령의 군사를 거느리고 영산·창녕·현풍 및 강위에 왕래하는 적을 지키고 있습니다.³⁹⁾

(3) 泗川·固城·鎭海의 戰鬪

진주가 중요한 방어거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왜적은 5월 말 이후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고성으로 이동해 왔다. 그들은 그곳을 근거지로 하면서 사천성을 점령하고 진주성 부근에까지 다가와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주성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있던 관군과 의병의 연합적인 방어체제에 의해 격퇴되었다. 6월 말 이후에는 창원의 왜적 2천여 명과 함께 보다 큰 병력이 다시 공격해 왔다. 이때의 크고 작은 전투는 한 달 이상 전개되지만 초유사와 감사 등이 독려 지원하는 가운데 관군과 의병들은 왜적을 부산 방향으로 격퇴시켰다.⁴⁰⁾

이것은 초기부터 초유사 金誠一의 수습책을 통해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관군과 의병의 연합적인 방어태세가 갖추어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었다. 고성 지역의 왜적은 8월에 들어서도 상당수가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 좌도 감사로 임명된 金誠一이 8월 9일에 올린 장계를 보면 그 상황이 엇보인다.

39) 『亂中雜錄』 2, 임진 8월 4일조.

40) 김준형, 앞의 논문, 1995.

진주판관 金時敏 등은 관군과 전군수 金大鳴 등이 모집한 병사를 거느리고 고성·진해의 적을 방어하고 있고 함안군수 柳崇仁과 칠원현감 李邦佐, 사천현감 鄭得悅, 곤양군수 李光岳 등은 각기 함락된 성에 돌아가서 싸워 지킨 공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함창·상주·개령·김산·지례·선산·김해·창원·진해·고성 바깥의 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8월 7일 창원부사 張義國은 함안군수 칠원현감 등과 더불어 나아가 창원 본부의 왜를 포위해서 10여 급을 참수하였고 나머지 적은 김해로 패주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군량이 아직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義國은 성안에 들어가 웅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고성의 적은 배를 잃은 자가 많아서 궁박한 도둑이 되어 스스로 죽음으로써 지키려 하므로 진주·함안의 병사들이 여러 번 공격했으나 불리했으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⁴¹⁾

즉 金誠一이 장계를 올리던 8월9일 무렵에도 창원의 왜적은 창원부사·함안군수·칠원현감 등이 이끄는 군사에 의해 쫓겨 갔지만, 고성·진해의 왜적은 아직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진주·함안의 군사들이 공격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 후 다시 고성의 적을 비롯한 연해지역의 왜적들이 다시 움직여 진주를 넘보는 상황이 되자 金時敏 등은 고성을 공격하려다 포기하고 진주성의 방비상태를 다시 갖춘다. 그 뒤 고성에 위치한 적은 사천을 또다시 점령하고 진주를 범하려 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金時敏은 드디어 尹鐸, 柳崇仁, 曹大坤 등과 더불어 정병 1천여 명을 거느리고 바로 사천 성 밑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이튿날에도 金時敏 등은 진군하여 사천 현성에서 5리쯤 떨어진 十水橋에서 전

41) 『龍蛇日記』 121면, 8월 9일 장계: 晉州判官金時敏等段 督率官軍及前郡守金大鳴等所募兵以禦固 城鎭海之賊咸安郡守柳崇仁, 漆原縣監李邦佐, 泗川縣監鄭得悅, 昆陽郡守李光岳等段 各還守其陷城 多有戰守之功乙仍于 咸昌·尙州·開寧·金山·知禮·善山·金海·昌原·鎭海·固城外 賊不敢侵犯 … 初七日 昌原府使張義國與咸安郡守, 漆原縣監等 進圍本府之倭 斬十餘級 餘賊敗走金海 軍糧尙有餘儲 乙仍于 義國入據其城是如爲白齊 鎭海固城之賊段多是失船者 故使爲窮寇 以死自守 晉州咸安兵 累功不利 至爲可慮爲白齊. 이 장계는 『鶴峯集』에도 「左監司時狀」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투를 벌여 왜적의 머리 몇 개를 베고 많은 적을 쏘아 죽였다. 적이 퇴각하여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성 밑에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자 적은 얼마 안 되어 밤을 이용해 도망가 고성 의 적과 합류하였다. 金時敏은 정병을 뽑아서 진주의 남쪽 永善縣에 진을 쳤다가 밤중에 군사들로 하여금 자갈을 머금게 하고 은밀히 大屯嶺을 넘어가서 새벽에 고성 읍성 밑에 이르렀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복치고 고탐치며 시위를 하자 고성에 웅거하던 적은 위축되어 수일 만에 밤사이에 창원 방면으로 도망해 갔다.⁴²⁾

이와 동시에 金時敏 등 진주지역의 군사들은 진해 지역에서도 복병을 설치하여 진해와 고성 사이를 왕래하던 적들을 기습하는 작전도 벌였다.⁴³⁾ 진해에 있던 적장 平小太을 사로잡은 것도 이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⁴⁴⁾

이와 같이 당시에는 진주 부근의 대부분의 병력들이 동원되어 고성·진해 지역의 왜적들을 몰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고성과 진해에 있던 적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산 방면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왜적들은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있기 전까지는 진주 부근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진주 부근은 잠정적인 평온함을 얻게 되었다.

(4) 第1次 晉州城 戰鬪⁴⁵⁾

진주성은 9월 말에 접어들면서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공격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진주는 경상우도의 거진으로서 진주성 수성군이 이 일대 방어의 중심이 되어 각처 의

42) 『亂中雜錄』 2, 임진 8월 9일.

43) 『浮查集』 권3, 晉陽全城記.

44) 『宣廟中興誌』 上, 임진 8월.

45)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성내전투와 함께 외곽에서의 전투도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진주지역전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진주성 전투'라고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은 이 전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통례대로 따른다.

병과 함께 왜적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 따라서 적군의 입장에서는 경상도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진주성을 함락하여 아군의 방어능력을 분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실제 9월 중순경 아군이 고성·창원을 연이어 수복하자, 김해에 있던 적장 加藤光泰·長岡忠興·長谷川秀·木村重茲 등은 작전회의를 열어 경상우도 병마의 주력이 진주성에 있는 듯하니 이에 뿌리를 뽑아버린다면 다른 지방에서 시끄럽게 움직이는 조그마한 군사들은 싸우지 않고서도 스스로 흩어지고 소산될 것이니, 먼저 이성을 대병력으로 일거에 함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⁴⁶⁾

둘째로는 당시 전쟁의 전체적 맥락과 관련하여 진주성이 호남으로 향하는 중요 경로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 있었다. 이 점이 공격의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호남은 군량의 중요 공급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⁴⁷⁾

따라서 아군의 입장에서는 진주성을 방어해야만 호남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참기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는 거꾸로 적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진주는 호남의 보장이요.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진주성의 전략적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했던 것이다.⁴⁸⁾ 결국 진주성은 경상우도의 보장이요 동시에 호남의 보장이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고 그것이 사태의 진전에 따라 전국의 초점으로 부각되면서 제1차 진주성 전투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46) 李炯錫, 『壬辰戰亂史』, 新現實社, 1976, 557쪽.

47) 당시 조정에서는 계사년 陷城 이전까지 제1차 진주성 전투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 가량 적군의 침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宣祖實錄』 40, 선조 26년 7월 경오조): 自上年以來 列邑皆遺 惟晉獨守 五度交兵 多殲醜類 全羅賴之而全完 糧餉專靠於此地 奸賊詞知 日夜染頤 而顧力不瞻耳.

48) 『龍蛇日記』 17면, “公曰 晉陽 湖南之保障 無晉陽 無湖南 無湖南 國無可爲矣” 여기서 公은 곧 招諭使 金誠一을 지칭한 것임.

이러한 점에서 招諭使 金誠一이 임진년 5월 부임 당시에 이미 “진주는 남방의 거진으로 경상·전라 양도의 요충이니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일대 여러 고을이 무너질 뿐 아니라 적이 장차 반드시 호남을 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진주성을 ‘必守之地’로 간주하여 주도면밀한 수성의 방책을 세웠던 것은 매우 적절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할 만하다.⁴⁹⁾ 이 전투는 임진 10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2만여 명의 적군이 진주성을 포위하던 당시 진주성의 수성군은 목사 金時敏의 군사가 3천 7백여 명, 곤양군수 李光岳의 군사가 1백여 명으로 도합 3천 8백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⁵⁰⁾ 다만 노약자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성 안에 남아있었으므로,⁵¹⁾ 이들도 수성전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주성 대첩은 필사적으로 항전한 목사 金時敏과 이를 도운 곤양군수 李光岳 이하 모든 장병이 성내에서 선전한 결과이며 외원한 각처 의병의 활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제1차 진주성 전투 당시 각지에서 외원군이 쇄도하여 호응함으로써 승첩을 거두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율탁과 관련된 재미 있는 일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이 밤에 다시 침입해 올 것을 예견하고 수비를 엄히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의 대군이 몰려와 구름사다리를 걸치고 성으로 기어오르려는 적장을 공이 활을 쏘아 떨어뜨렸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이 싸움에서 목사 김시민이 적의 유탄에 맞아 수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뒷일을 공에게 부탁하고 운명하니 공이 손수 殮襲 하였으며, 초유사의 명으로 牧使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바뀌고 정진의 본진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다.⁵²⁾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인접지역의 의병장으로서의 율탁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49) 『宣祖實錄』 27, 선조 25년 6월 병진조.

50) 『亂中雜錄』 2, 임진 10월 6일조.

51) 『龍蛇日記』 47면.

52) 『龜山遺事』, 72-73쪽.

한편 金誠一은 대세의 어려움을 미리 간파하고 멀리 호남 의병장 崔慶會·任啓英 등의 내원을 청하여 薩川倉(진주경내)에 주둔케 하였으며,⁵³⁾ 9월 하순부터 적의 전초적 공격이 시작되자 확실히 대비하였다. 선조실록에 나오는 金誠一의 치계에는 그 대략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지난 10월 5일에 적이 1만 명을 셋으로 나누어 곧바로 晉州를 침범하여 慶尙右兵使 柳崇仁, 泗川縣監 鄭得悅, 背梁權管 朱大清이 출전하여 전사하고, 晉州牧使 金時敏, 判官 成守慶, 昆陽郡守 李光岳은 성을 지킬 계책을 세우고 제장과 함께 각 문(門)을 나누어 지켰습니다. 7일에 왜적은 대나무를 베어 방패로 삼아 줄지어 진을 만들고 사이사이에 木版을 끼워 점차로 진격해와 크게 소리치며 포를 쏘았습니다. 申時에 잠깐 물러갔다가 初更에 또 진격해 왔으며, 삼경에 다시 물러갔습니다. 이보다 앞서 신은 진주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三嘉義兵將 尹鐸, 宜寧假將 郭再祐, 草溪假將 鄭彥忠 등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들어가고, 陝川假將 金俊民은 북으로 들어가고, 全羅義兵 崔慶會는 서쪽으로 들어가고, 固城假將 趙凝道와 伏兵將 鄭惟敬은 남쪽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尹鐸은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정언충은 1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변에서 모였는데, 馬嶼(진주시 옥봉동에서 초전으로 넘어가는 말티고개를 말함)에서 적과 부딪쳐 오랫동안 크게 싸우다 군사가 궤멸되어 돌아왔습니다.⁵⁴⁾

김성일의 이 치계를 통해 볼 때, 1차 진주성전투는 성을 중심으로 치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항시 승첩을 거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백여 명을 거느린 율탁의 군대가 마현에서의 전투에서 패전했다는 부분은 이러한 점을 증명해준다.

53) 『宣祖修正實錄』 26, 25년 10월조.

54) 『宣祖實錄』 33, 宣祖 25년 12월 5일(신묘).

(5) 제2차 晉州城 戰鬪

제2차 진주성 전투는 계사년(1593) 6월 19일에 왜적이 작전을 개시하면서 6월 29일에 이르기까지 11일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치루어진 대공방전이다. 여기서 왜적과 우리 관·의병 그리고 성내 백성들 사이에 전개되었다. 이때 왜군의 병력은 약 9만 3천여 명이였다.⁵⁵⁾

당시 진주목사는 徐禮元이었으며 제1차 진주성 전투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던 관찰사 金誠一은 4월 29일 진주 공관에서 병사하였고,⁵⁶⁾ 金功이 그를 대신하였다.⁵⁷⁾ 또한 金時敏에 이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던 金汚도 3월 11일 병사하였고, 의병장 崔慶會가 그를 대신하였다.⁵⁸⁾

진주목사 휘하의 本州軍은 대략 2천 4백여 명을 상회하는 정도였다.⁵⁹⁾ 그러나 제2차 진주성 전투는 경상우도 관찰사의 절제를 받아 진주목사가 통솔하는 본주군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던 제1차 전투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달랐다. 남하하는 왜적을 따라 조선의 관군·의병과 명나라 군사도 뒤를 쫓아내려 왔다. 왜적이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함안으로 이동할 무렵, 경상·전라·충청·삼도의 군사와 주요 의병은 의령과 함안에 주둔하고 있었다.⁶⁰⁾ 적이 함안으로 나오자 전라도 관찰사 權慄은 본도 방비를 명분으로 의령·산음·함양을 거쳐 운봉으로 돌아갔고,⁶¹⁾ 郭再祐(의병장, 성주목사), 洪秀男(의병장, 경기조방장), 高彦伯(삼도조방장) 등은 물러나 정진을 지키는 반면 崔慶會(경상우병사), 黃進(충청병사), 金千鎰(창의사), 金俊民(거제현령) 등은 진주성에 들어가 수성태세를 갖추었다.⁶²⁾ 적이 정진으로 육박해

오자 郭再祐 등은 삼가 등지로 물러났고 權慄은 남원까지 후퇴하였다가 도원수에 임명된 후 다시 운봉으로 이동해서 주둔하였다.⁶³⁾

한편 명나라 군사는 당시 대구·남원·상주 등지에 각각 머물러 있으면서,⁶⁴⁾ 조선 정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병을 보내지 않고 방관하였다.⁶⁵⁾ 이에 따라 진주 수성군은 포위된 이후 성 밖 백리 내에 외원군이 전무한 문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⁶⁶⁾ 그것은 외부와의 연락조차 두절되어 버리고 함성에 이르도록 진주성 소식마저 權慄 등 아군이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극한 상황이었다.

명나라 군사를 포함한 이들 아군을 ‘觀望軍’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⁶⁷⁾ 당시 진주성 내의 아군 병력은 2천8백여 명(본주군 제외), 전사자 3천2백4십 명 정도(본주군 포함)로 나타났다.⁶⁸⁾ 그러나 이것이 실제 수성군 병력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선 병력 항목에는 金俊民·李崇仁·尹鐸의 상당한 규모의 군사를 포함한 여러 관·의병의 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주군의 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밖에 함양을 포함한 경상우도 일원의 군사들도 상당수 입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⁶⁹⁾ 충청도 및 경상우도의 병력은 충청병사 및 경상우병사 휘하의 군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4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본주군을 합하면, 수성군의 전체 구성과 규모는 경상우도·충청도의 관군과 의병, 전라도 의병을 주축으로 대략 6, 7천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진주성이 함몰되어 6만 명이 도륙당했다는 것은 성 안에

55) 李炯錫, 앞의 책, 1974.

56) 『宣祖實錄』 37, 선조 26년 4월 기해조.

57) 『宣祖實錄』 38, 선조 26년 5월 기사조.

58) 『宣祖實錄』 37, 선조 26년 4월 을사조.

59) 『宣祖實錄』 40, 선조 26년 7월 갑술조.

60) 『宣祖實錄』 39, 선조 26년 6월 임자조.

61) 『孤臺日錄』 1, 계사 6월 17일조.

62) 위의 책, 계사 6월 19일조.

63) 『宣祖實錄』 40, 선조 26년 7월 계해조, 『난중잡록』 2, 계사 6월 29일조.

64) 『宣祖實錄』 40, 선조 26년 7월 무진조.

65) 『宣祖實錄』 40, 선조 26년 7월 신유조.

66) 『宣祖實錄』 40, 선조 26년 7월 정묘조.

67) 『宣祖實錄』 3, 계사 9월조.

68) 지승중, 앞의 논문.

69) 『孤臺日錄』 1, 계사 6월 29일조.

남아있던 일반 백성들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였기 때문이다.⁷⁰⁾

제2차 진주성전투 패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력상의 열세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전략상의 문제·성 안에서의 통제력의 상실·외원이 전혀 불가능했다는 점,⁷¹⁾ 수성군과 성민과의 호흡 불일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金千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적으로 진주성은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

반면 왜적은 일단 진주성을 함락시킨 것으로서 그들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한 다음 진주 주변 지역을 약탈하고,⁷²⁾ 7월에는 전라도 고부에까지 진격해 들어갔다.⁷³⁾ 그러나 왜군은 진주성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손실과 그로 인한 전력의 약화로 사실상 호남공략의 목적이 좌절되고 말았으니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 셈이었다.⁷⁴⁾

이 2차 진주성전투와 합천의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천군의 자체 자료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⁷⁵⁾ 하지만 유독 삼가의병장 윤탁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예측하였으나 의리를 지켜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여 최후까지 분전하였으며 계사년 6월 29일에 순직하였다. 윤탁의 2차 진주성싸움에 대해 공의 후손들에 의해 편찬된 『龜山遺事』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때 명과 왜 사이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바 조정에서는 교지를 내려 장수들을 독전하였으나 장수들은 어정거리며 참전을 꺼리고 있었다. 이때 조정의 명령으로 도원수 金命元과 전라순찰사 權慄 등이 의령에 모여 논하였으나 적의 기세에 눌려 감히 전진하지 못하고 호남으로 후퇴하였고 오직 창의장 金千鎰, 경상우병사 崔慶會, 충청병사 黃進, 의병장 高從厚, 김해부

70) 『宣祖修正實錄』 27, 선조 26년 6월조.

71) 『亂中雜錄』 계사년 9월조.

72) 『宣祖修正實錄』 27, 선조 26년 6월 갑신조.

73) 『宣祖修正實錄』 27, 선조 26년 7월 계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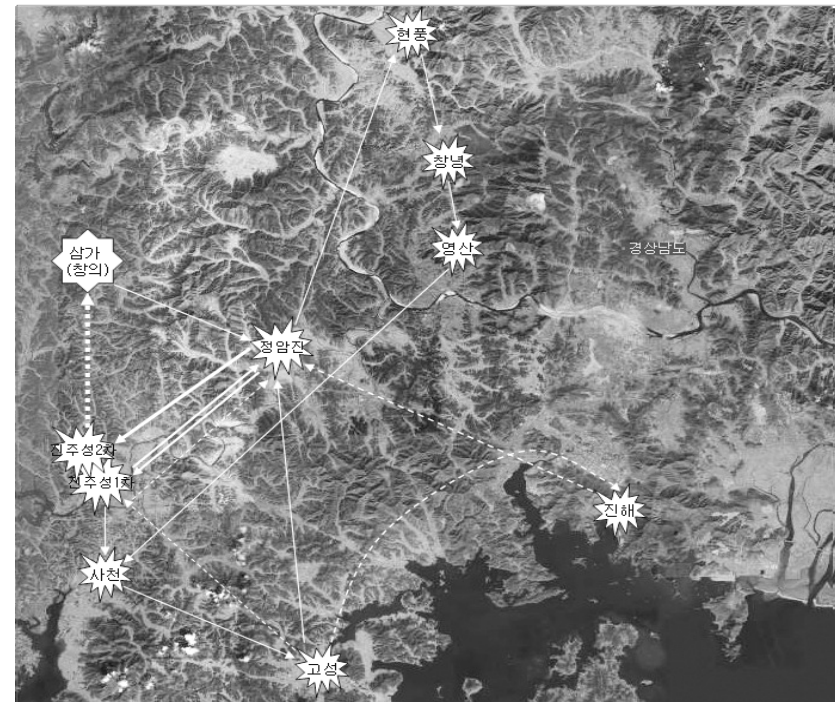
74) 『隱峯全書』 7, 진주서사.

75) 『陝川壬亂史』 2, 앞의 책, 199쪽.

사 李宗仁, 사천현감 張潤 등이 입성하였으며 공 또한 광공(망우당을 말함)과 의논하니 광공은 이기지 못할 싸움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나는 招兵을 받았으니 아니 갈 수 없다”고 하며 어려운 싸움을 알면서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였으며, 의병장 姜熙悅, 李潛 등이 잇달아 입성하였다.⁷⁶⁾

(6) 구산 윤탁의 전투상황 종합

[그림 3] 구산 윤탁의 전투 예상도



주: 실선은 실제 이동경로이며, 점선은 추정되는 이동경로임. 실선의 굵기는 전투의 강도에 비례한다. 추정되는 전투지역(진해)을 제외한 지역의 모양이 北斗七星座를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76) 『龜山遺事』, 74쪽.

윤탁은 삼가 정금당에서 최초 창의하고 난 이후, 총 8개 주요전투(진해 지역 추가시, 9개가 됨)에 참전하여 활약했다. 작전지역의 직경 약 100km의 구역 속에서 전투를 수행했는데, 오늘날의 군단(Corps)급 규모의 특공작전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4. 몇 가지 검토 및 제언사항

(1) 삼가 의병의 상대적 무관심 이유

삼가 의병장 윤탁에 대해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정에서 의병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요컨대 “지속적인 군량미를 공급해 주는 집단이면서도 자체 무장력을 구비하고 있는 집단” 그리고 “관병이 아주 아쉬울 때는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특수작전 부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때는 도적질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다만 의령-삼가-합천-함안을 중심으로 한 의병은 향토방위의 성격이 강했는데, 지속적인 군량미 공급이 가능하면서도 자체 무장력을 갖추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더욱 긴요한 것은 전자일 것이다. 후자는 훈련을 통해서거나 특출한 장수를 영입하면 될 수도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삼가 의병이 의령이나 함천의 의병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음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삼가지역 자체가 인접지역에 비해 당시 해당지역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토지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시기적으로 앞서기는 하지만 인구대비 토지결 수와 정규군 수를 비교해 보면 조정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의령지역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3> 의령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의 인구수와 토지결수

지역	호수	인구수	墾田(결)		
			水田	旱田	합계
진주목	2,220	7,522	6,365	6,365	12,730
합천군	701	2,361	1,190	1,785	2,975
초계군	463	2,537	770	1,798	2,568
함안군	732	3,266	1,325	2,651	3,976
삼가현	307	2,027	950	963	1,913
의령현	504	1,629	2,370	1,188	3,558

자료 : 『世宗實錄』地理志, 김강식, 앞의 책, 31쪽 재인용 요약 발췌.

<표 4> 경상우도의 정규군수

지역	侍衛軍	營鎮軍	守成軍	船軍	합계
진주목	174	188		975	1337
합천군	36	22	16	236	310
초계군	27	36		280	343
함안군	64	76		370	510
삼가현	27	40		180	247
의령현	50	70		327	447

자료 : 『世宗實錄』地理志, 김강식, 앞의 책, 56쪽 재인용 요약 발췌.

(〈표 3〉, 〈표 4〉 참조).

둘째, 삼가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연계고리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했다는 점이다. 동시대의 자료에 의하면, 의병장들은 의병 초기부터 군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군량을 모집하기 위해 軍糧有司를 임명하여 해당 지역 재지사족들의 도움을 받아 양곡을 수집해서 조달하기도 했다.⁷⁷⁾

77)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계유: 備邊司曰(中略) 且義兵等給復其家免其身役義兵上來時

그런데 이러한 군량조달을 위해 의병장들이 직접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재지사족의 通婚圈 내의 혼인관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⁷⁸⁾ 이는 의령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혼맥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⁷⁹⁾ 특별히 윤탁의 대장인 곽재우 가문은 현풍의 토착세력으로 경상좌·우도의 재지사족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계 고리는 그 세력이 남진하면서 중간지대인 합천지역도 포함되게 되며, 정착한 의령과 그 동쪽인 낙동강에 연한 좌도지역 및 남강의 하류지역인 함안까지도 경제권 및 혼인관계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한 군량물자의 조달을 필요로 하는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삼가지역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주변 지역에 걸출한 의병(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창녕을 중심으로 한 金沔, 합천을 중심으로 鄭仁弘, 의령을 중심으로 郭再祐가 있었다. 특히 정인홍의 경우 양대 전란이 끝나고 난 뒤에 중앙정치의 실권세력이 되면서 우대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잡을 수 있었고, 곽재우의 경우 당시 초유사 김성일과의 개인적인 친분(곽재우의 부친 郭越이 司諫으로 있을 때 應敎로 봉직했음)과 초유사의 종사관을 했던 李魯의 庶女가 곽재우의 妾이었던 점 등은 당대의 중앙정계와 사후 전쟁에서의 의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삼가의의병(장)에 대한 홀대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넷째, 삼가 의병은 자기지역방어를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지역의의병의 지원병으로 활약을 했다는 점이다. 삼가 의병은 최초 정금당에서 창의를 결의한 후 정암진전투를 지원했고, 이후 이어지는 중요한 전투를 모두 삼가지역 이외의 곳에서 행했다. 이러한 점이 과소평가의 이유라고

一依官兵依給糧餉勿令匱乏之意義兵將及一路各官并爲下書上從之.

78) 金錫禧,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盤」, 『忘憂堂郭再祐研究』 2, 忘憂堂紀念事業會, 1989, 金康植, 앞의 책, 16쪽 재인용.

79) 이러한 점은 다음 자료 및 연구에서 확인된다: 李魯, 『四姓綱目』; 金錫禧,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盤」, 『忘憂堂郭再祐研究』 2, 忘憂堂紀念事業會, 1989, 35-36쪽; 김강식, 앞의 책, 110-116쪽.

볼 수 있다. 또한 삼가지역은 군량물자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산물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전략적 요충으로 보지 않은 점도 이러한 이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섯째, 삼가지역 의병은 논공행상의 자리에서는 뒷자리로 물러났고, 정치적 박해를 받을 때는 같은 범주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이다. 南冥 曹植이 삼가에서 雷龍亭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다는 점은 익히 알려지고 있다. 주변지역의 대부분의 의병장 金沔, 鄭仁弘, 郭再祐 등이 남명의 학덕을 입었다. 즉 남명이 삼가에 거하는 동안 이곳은 주변지역의 의병장들을 포함한 많은 재지유학자들의 정신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삼가지역은 군사적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 지역 창의 의병들의 활약상이 낮게 평가되어졌고,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정치적 인물이 정치적 보복을 당할 때에는 같이 당하는 이중적 아픔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당시의 의병에 대한 조정의 평가기준상의 문제이다. 임진왜란의 패전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당시나 지금이나 지역방어체제였던 鎭管體制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⁸⁰⁾ 그리하여 중앙의 사령관이 임지에 도착하지 않아 지역에서는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거점방어체제인 制勝方略體制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되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체제도 그 이름의 명분에 적극 부합하는 승리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연전으로 갈 경우 거점 내에서 전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백성들을 방기하는 전략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양쪽 모두에 문제점이 있었다. 당시의 전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혼합되어 있었고, 피·아간의 진격로의 방향이 심지어 같은 쪽으로 지향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쟁 상황은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군사적 비대칭성(Military Asymmetry)의 전형적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80) 柳成龍, 『懲愆錄』; 李樹健, “남명학과 의병활동의 역사적 의의,” 『南冥學研究』 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그런데 삼가의병은 이러한 작전상황 속에서 주로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 전면전보다는 기습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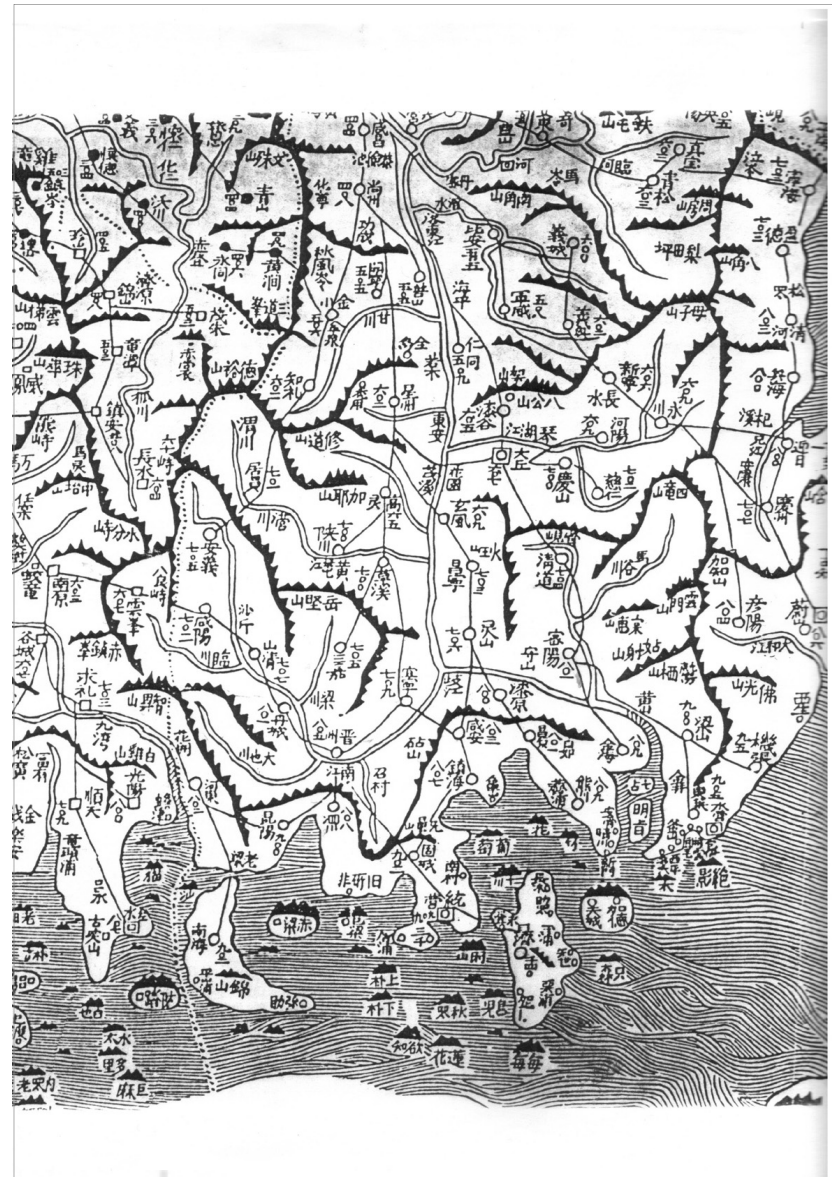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이유로 삼가 의병은 임진란 이후의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인접지역의 의병활동, 특히 의령지역 광개우의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의병활동에는 상당부분 삼가출신 율탁과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구산 율탁의 2차 진주성 참전 문제

일부 사학자들은 삼가출신 의병장 율탁의 2차 진주성 참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⁸¹⁾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대체로 사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차 진주성전투에서 관병과 의병, 일반백성을 모두 합해 6~7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성내에서 순절했다. 만약 율탁이 이 전투에서 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이 전투 이후 다른 지역에서 전투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직전 또는 직후에 다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율탁의 2차 진주성 참전과 순절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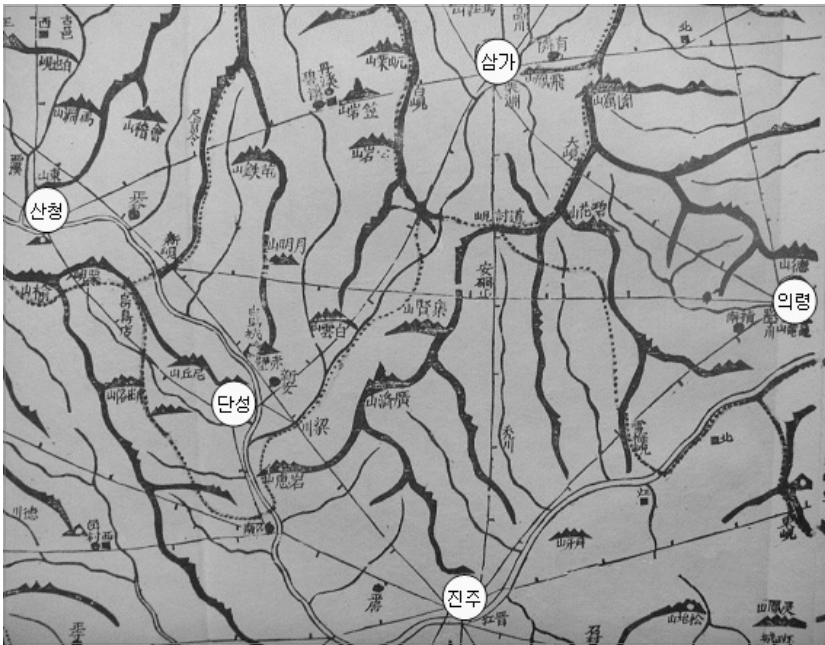
이러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삼가의 문화지리적 특징은 합천, 초계, 의령, 함안과의 연계성보다는 진주와의 연계성이 더 가깝다. 삼가의 북쪽으로는 岳見山이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초계와는 분리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그 줄기에 의해 의령과도 경계를 이룬다. 하지만 진주와는 같은 山(=岳堅山)과 河(=南江)을 토대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4], [그림 5] 참조).

[그림 4] 『대동여지도』의 경상도 지형



81)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임진왜란사를 전공하고 있는 사학자 3명을 인터뷰했다.

[그림 5] 『대동여지도』의 삼가현 주변 지형



주: 방사선모양의 교통망 중앙에 삼가현이 위치하고 있음. 진주와는 직접적인 연계망도 구축하고 있으면서, 단성과 의령을 통해서도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하게도 이 細圖에서는 '南江'을 '晉江'으로 표기하고 있음.

구산공의 종제인 추담공의 공에 대한 행장에서도 “지금의 진양은 옛날의 진양이고, 지금의 윤탁(구산공을 말함)은 옛날의 윤탁이다”(今之晉陽古之晉陽今之尹鐸古之尹鐸)”이라는 말이 나온다.⁸²⁾ 즉 윤탁을 중국고사의 동명이

82) 『坡平尹氏九房派世譜』首, 42쪽: 여기서 말하는 ‘옛날의尹鐸’이란 중국 春秋時代 晉나라 사람으로 趙簡子의 家臣이다. 晉陽의 守衛이 되었는데, 賦稅를 가볍게 하여 民心을 얻었다. 뒤에 晉陽이 韓·魏의 軍士에게 포위되었으나, 백성들이 叛逆할 뜻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태종실록』 7년, 정해 6월 1일 계미조와 『세조실록』 10년, 갑신 9월 1일 임오조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후자는 訥齋 梁誠之의 軍법·군정·군역·군제·사역 다섯 가지 국방강화방책에 대한 언급에서 상세히 확인된다.

인에 비유해서 그 문화적 공유영역이 晉陽, 즉 晉州와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2차 진주성전투가 끝나고 난 6개월 뒤 전국의 병력현황에서 삼가의병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593년 원 주사(袁主事)가 팔도에 있는 병마(兵馬)의 총수 중 왜적에게 빼앗긴 수와 현존하는 병마의 수 및 어느 지방에 주둔하고 있으며 왕경(王京) 주위에 우리나라의 병마가 있는 지를 묻고, 또 대동강 어느 곳에 병마가 얼마나 있으며 경상도에 있는 병마의 수와 어느 지방에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昌寧縣에 주차한 의병장 成安의 의병 1천 명, 靈山縣(현재의 고성 영현)에 주차한 의병장 辛碑의 군사 1천 명, 경상우도 晉州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金誠一의 군사 1만 5천 명, 昌原府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金時敏의 군사 1만 5천 명, 陝川郡에 주차한 의병장 鄭仁弘의 군사 3천 명, 宜寧縣에 주차한 의병장 郭再祐의 군사 2천 명, 居昌縣에 주차한 의병장 金沔의 군사 5천 명 …⁸³⁾

이 자료의 어디에도 삼가의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삼가의병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많은 삼가의병이 이 전투에서 순절했으며, 삼가지역에서 잔류하여 군량물자 조달을 담당했던 의병들은 인접지역 특히 사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의령지역의 의병에 합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⁸⁴⁾

83) 『선조실록』 21집, 1월 11일 병인조.

84) 『陝川壬亂史』 2, 앞의 책, 247쪽: 이 자료에 의하면, 34위의 의병장 중에서 1593년이 몰일(沒日)로 되어 있는 경우는 尹鐸, 朴思謙, 金蘭孫, 曹繼章, 宋希哲, 曹繼明 등 6위이며,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8위이며, 나머지는 20위이다. 따라서 1593년의 6위의 경우는 그 휘하 의병들과 함께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했으며,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타지역 지원 전투시 순절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20위는 이후에 지역방어활동을 계속했거나 의령지역 망우당계열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창의 당시 향리에 800명

셋째, 구산공 후손 문중의 소장 자료들에 의하면, 2차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했음을 시사하는 沒日이 계사년 6월 29일이다. 먼저 公의 從弟인 秋潭公이 撰한 公에 대한 行狀에서도 이러한 점은 잘 나타나고 있다.⁸⁵⁾ 또한 族譜⁸⁶⁾와 坡平尹氏九房派世譜에도 公이 계사년 6월 말에 순절했음을 밝히고 있어 순절장소가 진주성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시신이 없어서 유품과 옷가지로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도 있다.⁸⁷⁾

넷째, 무엇보다도 구산공이 전후 참전자 평가에 있어서 제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宣武原從功臣錄 3등의 녹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구산공의 순절 이후 가족에게 전달된 宣武原從功臣錄券은 현전하지 않고 있지만, 인접지역의 萊菴 鄭仁弘 등의 가문에 전해오고 있는 녹권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⁸⁸⁾

(3) 향후 삼가 의병의 현창 방향 제언

현재 구산 윤탁에 대한 현창은 대체로 향리의 후손에 의한 경우와 지역 자치단체의 일부지원에 의한 경우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公의 어린 시절 몸을 닦고 글을 익힌 龜陰齋(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34호)가 있고, 龜山書堂(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22호)이 있다(〔그림 6〕 참조).⁸⁹⁾ 현재 구산공을 실제 현창하고 있는 건축물로는 神道碑가 있고(〔그림 7〕 참조), 의령군 소재 忠翼祠가 있으며(〔그림 8〕 참조), 법인형태로 관리(사단법인 陝川壬亂倡義紀念事業會)되고 있는 합천군 대병면 성리 소재 倡義祠가 있다(〔그림 9〕 참조). 그리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盧鎔의 후손이 중심이 되어 忘憂堂과 龜山을 같이 배향한 龜淵書院이 있었다.⁹⁰⁾

그런데 정작 많은 삼가 의병이 참전하여 순절한 2차 진주성 전투를 기념하는 진주성 내의 축석루 旌忠壇⁹¹⁾이나 彰烈祠 등 어디에도 이들을 추모하

89) 비슷한 유형의 서당 및 서원은 다음과 같다. ① 구연서원(龜淵書院)이 또 있는데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제4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요수(樂水) 愼權 선생이 중종(1540년)조에 건립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던 龜州書堂 자리에, 1694년(숙종20년) 구연서원을 건립하여 지방유림이던 요수선생의 위패를 모시게 되었고, 뒤에 石谷 成彭年, 黃阜 愼守彝 선생을 추가 배향하게 되었다. ② 충청남도 논산시 부석면 부황리에 있었던 龜山書院이다. 1702년(숙종2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윤전(尹焜)·윤순거(尹舜舉)·윤원거(尹元學)·윤문거(尹文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8)에 훼손된 뒤 다시 복원하지 못하였다. ③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에 위치한 龜山書院이 있다. 1786년(정조10) 書社로 창건, 1788년(정조12) 서원으로 승격, 1839년(헌종5) 사액, 1868(고종5) 훼손, 1924년 복설, 2000년 이후 재건공사를 거쳤다. 배향인물은 여말선초의 인물인 관향 이천의 徐愈, 徐一元이다. 상세정보는 제한적이지만 ④ 구산 전북 마령면 강정리의 龜山書院, 그리고 ⑤ 조선중기 문관 尹愷(1575~1636)을 배향한 충남논산시 연산면의 龜山書院 등이 있다.

90) 이 구연서원은 한글로는 귀연서원으로 불렸었는데, 현종 무렵에 구평마을에 세워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경신년(1920년)에 큰 수해로 유실되었다고 한다.

91) 이 단은 숙종 17년(1686)에 진주교외에 세워졌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으며, 그 장소를 알 수 없다. 필진은 진주성 지근거리 또는 동문 밖 우측(문밖 기준)에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면서 추념, 현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잔류하고, 정암진으로 800명이 이동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구산공을 비롯한 삼가의병은 최소기준 800명×6/34에서 최대기준 800명×14/34의 계산식에 따라 최소 약 140여위, 최대 약 330위가 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순절한 손실률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수치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만, 향리의 잔여병력이 추가 지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정하였다.

85) 從弟인 秋潭公 尹銜이 찬한 公의 行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國恩不能討賊復讎惟有以死報遂與同時辨義享年纔四十時則二十九日也.” 『龜山實記』 권1, 12면.

86) 구산공 집안의 族譜에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子 鐸: … 嘉靖三十三年明宗九年甲寅生宣祖二十六年癸巳六月二十九日歿 ….

87) 從弟인 秋潭公 尹銜이 찬한 公의 行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賊退後葬衣冠于縣西五香谷負充之原.” 『龜山實記』 권1, 12면.

88) 한편 구산공의 급제 이후 무관행적 및 계속되는 추증계급(최종적으로 兵曹參判에 이름)에 대한 문제는 장자인 尹輔辟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추후 별도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의 동시기에 거론되고 있는 尹壁壁이나 尹壁輔은 尹輔辟의 오기이다.

는 기억매체가 없다. 肅宗朝에 임란에 대한 현상이 제기되었을 때나 高宗朝의 전국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기존의 많은 위패봉안의 위치가 이동할 즈음에 삼가 의병장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상소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⁹²⁾ 최근에는 선무원종공신녹권을 재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조상들의 임란시기 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⁹³⁾

[그림 6] 합천 구평리 소재 구산서당 전경



주 : 구산서당(龜山書堂)의 전경임. 2001년 12월 11일 합천군 문화재자료 (제322호)로 지정됨. 현재 합천군 가회면 구평리에 소재하고 있음.

92) 『龜山遺事』에는 수많은 필사본 상소문이 실려 있다.

93) 박세진, “진양 화씨 공신 3명 충렬사 배향 요구,” 『경남매일신문』, 2008. 10. 18: “진주시 집현면 소재 진양 화씨(化氏) 문중이 선무원종공신녹권을 통해 새로이 3명의 공신을 찾아냈다고 충렬사 배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문중에 따르면 최근 규장각에 보존돼 있는 선무원종공신녹권에서 2등공신 화춘(化春), 3등공신 화의성(化希成)·화연세(化連世) 등 3명의 공신을 찾아냈다. 따라서 문중은 이들 공신의 위패를 충렬사에 모실 것을 주장하고 있다”(기사 중 선무○등공신은 선무원종공신○등이므로 등급호칭을 조정함).

[그림 7] 龜山公(右)과 秋潭公(左)의 神道碑



주 : 경남 문화재자료(제3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합천군 가회면 함방리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8] 忠翼祠 전경



주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위치. 보물 제671호로 지정

역사에 대한 재평가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역사적 공훈에 대한 평가가 고정적이어서는 안된다. 당시 원래는 공신이었던 자(또는 집안)가 정쟁으로 인해 역적으로 몰린 경우도 있었다. 임진·정유 양란을 끝내고 조정에서는 전투의 공로로 선무공신과 선무원종공신을 녹훈했는데, 공이 큰 선무공신의 경우 장수 18명(1등: 이순신, 권율, 원균, 2등: 진주성의 金時敏 등 5명, 3등 10명)이며, 선무원종공신의 경우 9,060명으로 총 9,078명이다. 그런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만 6~7만 명이 순절했으므로 마땅한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향후 임진왜란에 대한 재평가와 현장은 개인위주로 해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순절한 분들의 후손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번 제기될 때마다 기념관을 신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적어도 진주박물관 내에는 창렬사와는 별개로 지역단위의 주요 장군(또는 의병장)을 중심으로 표기하여 참여한 모든 장졸(또는 의병)의 숫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추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박물관에는 선무공신(선무원종공신)들의 D/B를 구축하여 기초적인 색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 거기에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삼가출신 의병장 구산 윤탁과 제의병들의 활약상이 같이 현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림 9] 합천 창의사 기념탑



5. 맺 음 말

본 논문은 임진왜란 시 경상우도에서 의병활동을 벌인 三嘉 義兵將 尹鐸의 활약과 그가 차지했던 의병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이 전개된 배경은 난초기에 관군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진 데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민들은 대다수가 이반, 피란하였으나 적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행한 각종 만행은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울러 삶의 터전인 향토를 마냥 버려둘 수 없어 의병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상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우도는 우리 측에는 회복 근거지인 호남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이었으며 일본 측도 후방 수송로의 확보란 점에서 이 지역을 중시하였다. 이에 결국 이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경상우도의 많은 의병장들이 이 지역 사수에 진력하였으니, 이는 전쟁사적으로 적의 후방 교란과 병력 분산을 유발시킨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몇 명의 대표적인 의병장들에게만 치우쳐 연구된 결과 경상우도 전체의 의병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은 尹鐸의 의병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에서 시도하였다. 본고가 밝힌 점은 다음과 같다.

임란 발발 이후 최초로 창의했던 郭再祐가 감사 金晳와 병사 曹大坤에게 토적으로 몰려 휘하의 병사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 한때 모든 일을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하였다. 이 무렵 金誠一이 초유사로 부임하여 그를 단성에서 만나 그 활동을 보장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의병 부대는 극적으로 소생하게 되었다. 또한 의령 郭再祐軍에 참가 尹鐸軍을 합軍하여 군세를 증가시켜 주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尹鐸은 三嘉軍을 거느리고 鼎岩津을 본거지로 삼

고 沈紀一로 하여금 배를 지키면서 강을 건너는 왜적을 譏察케 하였으며 郭再祐는 宜寧軍을 거느리고 世千里를 본거지로 삼고 長縣에 沈大承, 洛西에는 李雲長이 관장케 한 점이다. 이와 같이 삼가 尹鐸 軍은 別陣을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때로는 감사와 초유사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전·지원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그가 의병장으로 주도한 주요 전투는 정암진 전투, 현풍·창녕·영산 수복전, 사천·고성·진해 수복전, 제1차 진주성 전투, 제2차 진주성 전투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암진의 승첩은 경상우도를 보존할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이 평시와 다름없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으며, 왜군의 호남지역으로의 진로를 차단함으로써 왜적의 호남 침입을 막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현풍·창녕·영산 등에 있는 왜적을 쫓아냄으로써 창녕일로는 왜군의 통행이 단절되고 왜군은 오직 밀양·대구로부터 안동·선산을 거치는 中路만을 택하여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왜적선단의 통행도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초유사와 감사 등의 독려에 의하여 金時敏과 尹鐸 등은 정병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사천·고성·진해 지역의 왜적을 몰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적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산 방면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왜적들은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있기 전까지는 진주 부근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제1차 진주성 전투는 金時敏을 중심으로 한 휘하장병들이 일치단결하여 대응전법을 창출 응전하였으므로 결국 승전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승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金時敏을 중심으로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데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지속적인 지원군이 외부로부터 응전하였는데 있었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의 함락원인은 피아간의 병력·화력의 격차, 수성군 내부의 지휘체통의 혼란, 전략상의 문제점, 외원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왜적은 일단 진주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그들의 일차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주성 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손실과 그로 인한 전력상의 손실로 남방의 기지확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왜군의 호남진출을 시수한다는 守城軍의 본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어체제가 산성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거점 방어였다고는 하나 이 체제로 임란 당시의 전투태세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제한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국방태세의 대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조선의 유교적 근본주의에 있다. 정규군에 의한 정규전, 소규모부대에 의한 기습전보다는 대규모부대에 의한 전면전 등의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의병군의 전형적인 소규모, 기습공격에 의한 전투방식을 높게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의병은 고정적인 전담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소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병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의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의 시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삼가출신 의병장 구산 윤탁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하고, 바른 역사재평가 기준에 의해 마땅히 현창되어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08. 9. 12, 심사수정일 : 2008. 10. 16,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임진왜란, 의병, 의병장, 경상우도, 윤탁, 광재우, 초유사, 삼가, 정규전, 특수작전

<ABSTRACT>

The Righteous Army Operations in the *Samga* Area,
Gyeongsang U-do Province during the *Imjin* Japanese Invasion:
 Focusing on the Righteous Army Leader *Yun Tak*

Yoon, Chang-hyeon · Park, Gyun-yeol

This paper is to research *Yun Tak* who was the Righteous Army Leader in *Samga* area, *Hapcheon* where is located in *Gyeongsang* Province, Korea, and his military operations, and to investigate into his role as the Righteous Army Leader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Joseon* in 1592.

As the war broke out in 1592, the *Joseon* Forces was not ready enough to defend its people and territory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effectively. On this account, it was natural that the Righteous Army was involved in that war.

At first, almost civilians had not shared defend mental readiness together, leaved their hometown. However, the consistent invasion of the enemy forces and their atrocities made *Joseon* people arouse the hostile feelings against the Japan.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with the thought that they couldn't give up their own home and residential site any more, it stood to reasons that the civil army in the cause of Confucian justice had been organized and established.

Moreover *Gyeongsang U-do*, which means the right-side area in *Gyeongsang* Province, Korea, was the place not only to keep the *Honam* area for the war rehabilitation to the *Joseon* Forces, but also to secure the supply routes for the Japanese Forces. Accordingly, it was an important area to both *Joseon* and Japan strategically.

This reasons brought the violent battle, thus many a Righteous Army leaders who engaged in *Gyeongsang U-do* battles struggled to defend to the last. This battle in the military history was very meaningful in some respects that the Righteous Army harassed the rear of the enemy and dispersed the strength of the Japanese Forces.

Gwak Jae-u who founded the first righteous army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was looked upon as local insurgents by *Gamsa Kim Su* and *Byeongsa Jo Dae-gon*. *Gamsa* and *Byeongsa* was a sort of provincial governor of the *Joseon* at that time. When the Righteous Army *Gwak Jae-u* lead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Forces was attacked by the royal troops, civilian soldiers got scattered. He would also cease a battle against Japan and take the refuge in *Jirisan* which is located in the southern middle area of Korea.

In those days, a newly appointed *Choyusa Kim Sung-il* met *Gwak Jae-u* in *Danseong* area and encouraged him into participating in the war by the guarantee of his military operations. *Choyusa Kim*'s pivotal role made the Righteous Army operations in that area brought back to life.

In addition, the civil army of *Kwak Jae-u* in *Uiryong* area and one of *Yun Tak* in *Samga* area became one group and the cooperative military power increased more and more.

The righteous army members who came from *Samga* area had executed special assault operations for not their area but other provinces. Based on the scope of regular operations, that had been never respected higher than other army team at that time. So in making patriotic old veterans policies and researching the *Imjin* Japanese Invasion, the *Samga* Righteous Army and its leader *Gusan Yun Tak* should be reevaluated appropriately.

Key Words : *Imjin* Japanese Invasion, the Righteous Army, Righteous Army Leader, *Gyeongsang U-do*, *Yun Tak*, *Gwak Jae-u*, *Choyusa*, *Samga* Righteous Army Operations, Special Operations